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1만 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888만 7천 명,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의 19%를 차지한다. OECD 기준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돼 자영업 비율은 23%까지 올라간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3개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2023년 기준)은 23%로 일본(10%), 미국(6%)과 비교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가늠케 한다. 이렇게 자영업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경쟁에서 탈락해 창업 후 5년 내 폐업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사라지고, 4곳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이번 <넘버즈 289호>에서는 한국의 자영업자 실태를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특히, 자영업 유입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부채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자영업 성도를 둔 목회자들에게 성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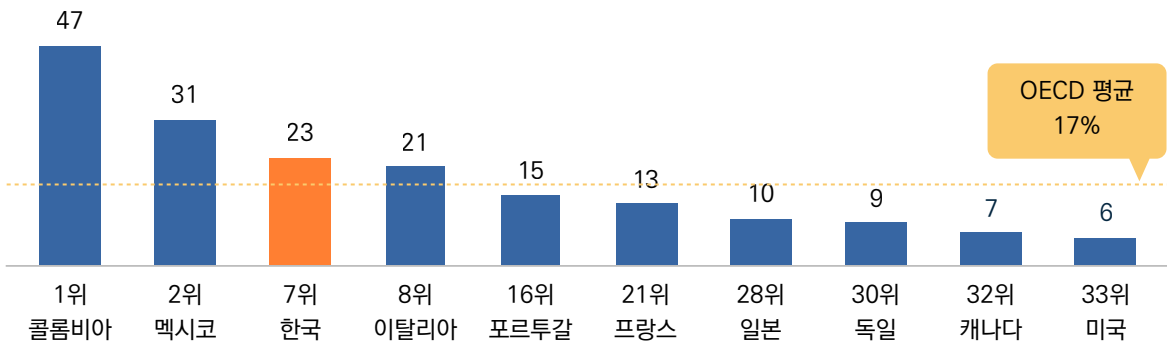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자영업자 일반 현황] 한국 자영업자 비율, 일본·미국보다 2배 이상 높아!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OECD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023년 기준, OECD 33개국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7%였는데, 한국은 23%(7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 OECD 33개국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절반 가까이(47%)됐다. 반면 '미국' 6%, '일본' 10%로 한국이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그만큼 자영업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 (2023, OECD 33개국 중 주요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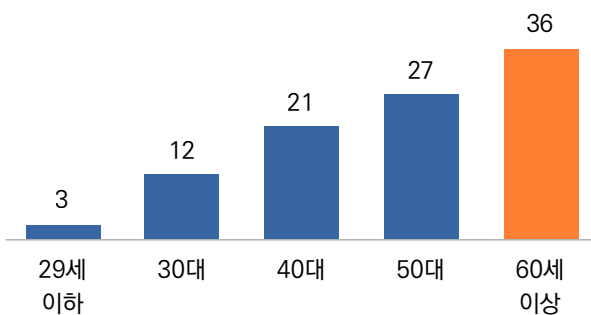
※출처 : OECD, self-employment rate 참조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OECD 조사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과는 상이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은 60세 이상!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36%, '50대'가 27%로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3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9세 이하'(3%)와 '30대'(12%)의 비중은 낮아, 자영업자 연령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림]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 (2023, 전체 자영업자 수 대비 비중, %)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자영업자도 고령화...작년 환갑 이상 200만명 첫 돌파, 2024.02.27.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6138900030>)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직장인보다 적다!

- 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소득은 4,157만 원(월 346만 원)으로, 2023년 직장인 평균 연소득 4,332만 원(월 361만 원)에 비해 연간 175만 원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

[그림] 직장인 vs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2025.03.27.

※출처 : 조선일보 기사, 직장인 지난해 평균 연봉 '4332만원'... 역대 연봉자는 무려, 2024.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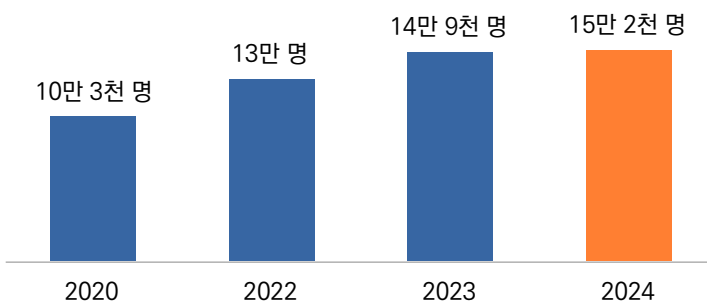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19/FA42DRGSNJGFVNUJ27LXSD5MJ/?utm_source=chatgpt.com)

*자영업자는 2024년 기준, 직장인은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소득으로, 자영업자와 직장인 연소득 기준 연도가 다름에 유의, 그러나 직장인의 2024년 소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자와의 격차는 실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됨

부업하는 자영업자, 꾸준히 증가 중!

- 낮은 자영업 소득으로 인해 부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0년 10만 3천 명에서 2024년 15만 2천 명으로 4년 만에 약 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본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대응책이라 볼 수 있다.

[그림] 부업하는 자영업자 수 (각 연도별 1/4분기 기준)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생존알바 내몰린 작은 사장님 "부업 구하기도 힘들어요", 2025.04.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45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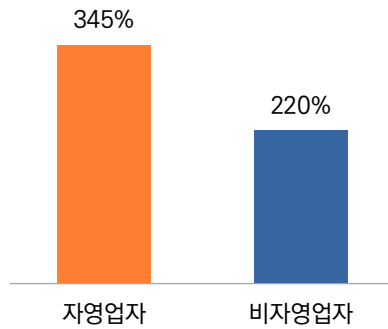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빚(부채) 및 연체 현황]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 : 3억 4천만 원!

-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3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업자 대출이 2억 3천만 원, 가계 대출이 1억 1천만 원으로, 생계와 사업 모두에서 부채 부담이 큰 상황임을 보여준다.
-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024년 말 기준 345%로, 같은 시점 비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22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 (2024년 말 기준)



[그림]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 Loan to Income Ratio) (2024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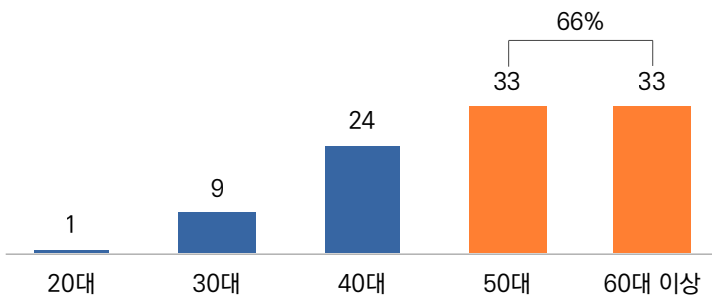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2025.03.27.

※출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보도자료, '자영업자 부채, 소득의 3배 넘어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 2025.04.27.

전체 자영업 대출 잔액의 66%, 50·60대 고령층에 집중!

-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33%씩을 차지하며 전체 대출의 66%는 50·60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30대 젊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10%에 그쳐, 자영업 부채의 고령층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림]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 '연령별' 비중 (2024.11.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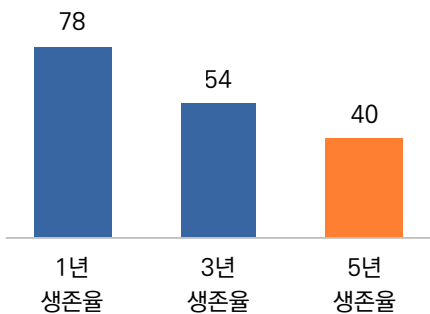
※출처 : 한겨레 기사,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2025.01.1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8449.html)

03

[자영업자의 폐업 현황]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 이번에는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100대 생활업종)의 생존율을 살펴본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은 78%, 3년 생존율은 54%, 5년 생존율은 40%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후 5년 내 절반이 넘는 60%가 폐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단 10곳 중 4곳만 살아남는 셈이다.
- 창업 관심이 높은 생활업종 상위 20개 중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73%)과 '펜션/게스트하우스'(73%), '교습학원'(70%) 순이었다. 반면, '식료품가게' 54%, '부동산중개업' 60%, '실내장식가게' 6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그림] 자영업자 생존율 (2023, %)



[표] 창업 관심 생활업종(상위 20개) 3년 생존율 순위* (2023, 상하위 각각 3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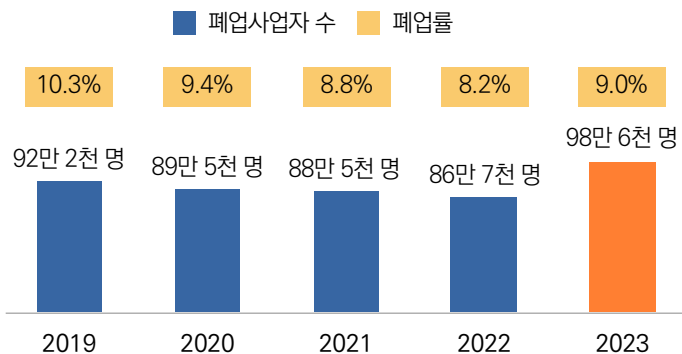
| | 1위 | 2위 | 3위 |
|----|--------------|------------------|---------------|
| 상위 | 미용실 73% | 펜션/게스트하우스 73% | 교습학원 70% |
| 하위 | 식료품가게 54% | 부동산중개업 60% | 실내장식가게 67% |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창업, 첫째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2025.04.29.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창업 관심 생활업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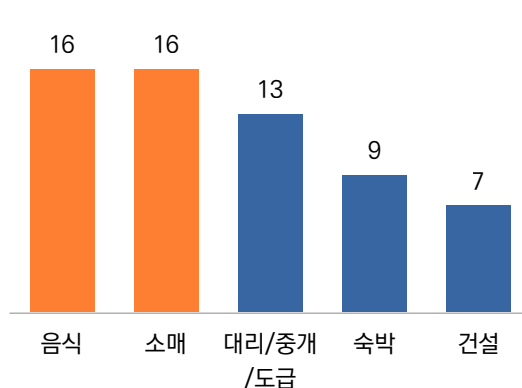
폐업하는 자영업, 음식/소매업이 가장 많아!

- 폐업한 사업자는 2023년 기준 98만 6천 명으로, 1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코로나 유행기(2020년~2022년)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자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 폐업률의 경우 2019년 10.3%에서 2022년 8.2%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 9.0%로 반등하며 다소 높아졌다.
- 업종별로는 '음식업'(16%)과 '소매업'(16%)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리·중개·도급' 13%, '숙박' 9% 등의 순이었다.

[그림] 폐업 신고(한 사업자) 현황



[그림] 업종별 폐업률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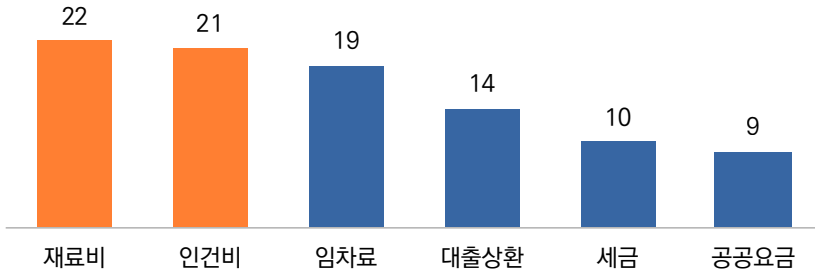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24.12.26.
*폐업률= 폐업사업자 수 ÷ (총 사업자 수 + 폐업사업자 수)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모는 가장 큰 요인, ‘재료비’와 ‘인건비’!

- 이렇듯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이유는 비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은 항목은 ‘재료비’(22%)와 ‘인건비’(21%)였고, 다음으로 ‘임차료’ 19%, ‘대출상환’ 14%, ‘세금’ 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가장 큰 부담 요인 (상위 6개, %)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2025.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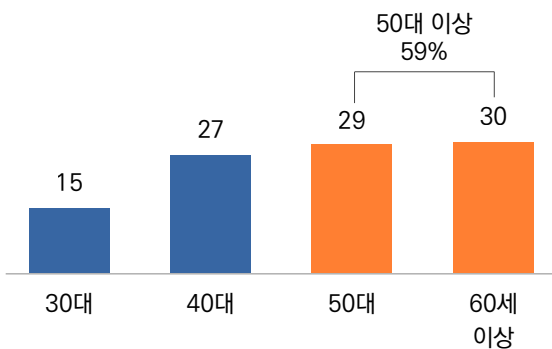
04

[고령자의 자영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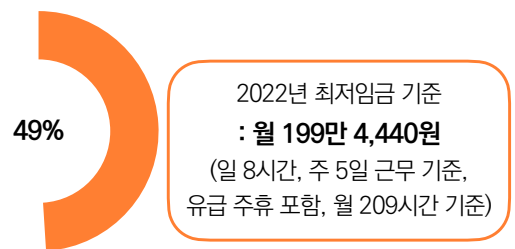
임금근로에서 자영업 전환자,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 종사자로 전환한 사람의 연령은 ‘50대’ 29%, ‘60세 이상’이 30%로, 전체의 절반 이상(59%)이 50대 이상이었다.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 가운데 50대 이상 비율이 59%임을 보면, 직장에서 퇴직한 중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주요 일자리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50대 이상 자영업 전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9%는 월 최저임금(199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그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 전환자의 연령대별 비율* (%)



[그림] ‘50대 이상 자영업 전환자’ 중 최저임금 미만 소득 비중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고용이슈 2024년 겨울호), 202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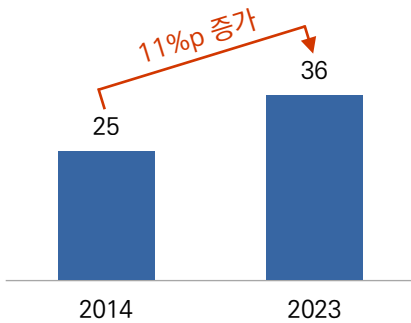
*2006~2022년(1~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사이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3년(18차 조사)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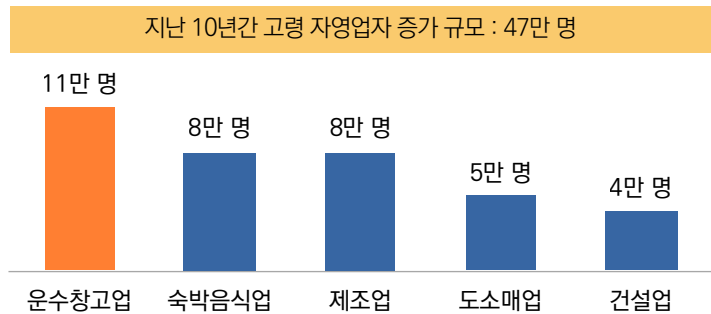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10년간 11%p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KLI)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0년간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14년 25%에서 2023년 36%로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1만 명) 증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숙박음식’, ‘제조’, ‘도소매’ 순이었다. 이 중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업종에서 증가한 비중이 61%(29만 명)에 달해, 퇴직 후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율
(전체 자영업자 대비, %)



[그림]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 업종별 증가 규모
(60세 이상 자영업자 기준, 2014년 대비 2024년 증가 규모, 상위 5개)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2024.05.30.

※출처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2025.05.1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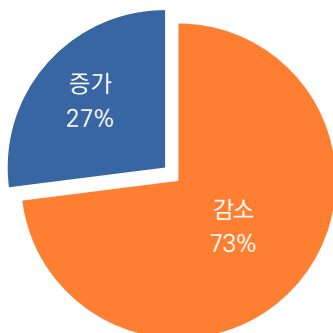
[자영업자의 실적 및 전망]

자영업자 5명 중 3명, 올해(2025년) 매출, 작년보다 감소 예상!

- 2024년 자영업자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3%에 달해, 10명 중 7명이 매출 부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 2025년 전망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를 예상한 비율이 61%, ‘증가’ 예상은 39%로,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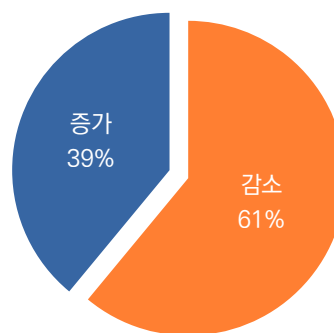
[그림] 2024년 실적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변화



[그림] 2025년 전망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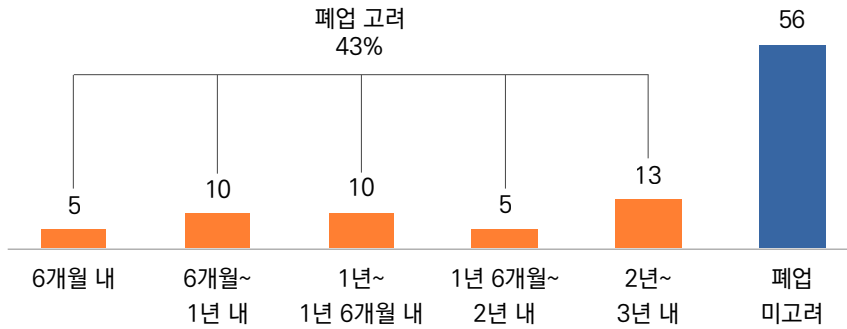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2025.02.25.

자영업자 43%, 향후 3년 내 폐업 고려!

- 자영업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요인이 큰 부담이 되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길은 폐업이다. 자영업자들에게 2025년 이후 폐업을 고려 중인지를 물은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3%)이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내에 폐업을 생각한다는 비율은 15%였다.

[그림] 폐업 고려 여부 (%)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2025.02.25.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번호 요약

1.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직장인보다 적대!

- 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소득은 4,157만 원(월 346만 원)으로, 2023년 직장인 평균 연소득 4,332만 원(월 361만 원)에 비해 연간 175만 원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

2.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 3억 4천만 원!

-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3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자 대출이 2억 3천만 원, 가계 대출이 1억 1천만 원이었다. 생계와 사업 모두에서 부채 부담이 큰 상황임을 보여준다.

3. 자영업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은 78%, 3년 생존율 54%, 5년 생존율은 40%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100만 폐업의 시대” 요즘 자영업의 충격적인 현실 (머니인사이드)

관련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목회 적용점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낮은 자영업 소득으로 부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세이고, 자영업자 1인 평균 대출액은 3억 4천만 원에 달한다. 또, 창업 후 5년 내 가게 10곳 중 6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폐업률도 높은 편이다. 게다가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6%로 2014년 25%에서 계속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목회자는 ‘자영업자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자영업자 성도는 단순히 사업자이기 이전에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목회자는 이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형식보다 현실에 맞는 돌봄을 고민해야 한다.

가령 주중 참여가 어려운 자영업자 성도들을 위한 유연한 모임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자영업 성도를 위한 맞춤형 소그룹인 셈이다. 시간대 조정(새벽/심야 등) 혹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같은 관심사 그룹이기에 서로 간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조언을 줄 때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찾아가는 심방(사업장 방문)을 통해 기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역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채/폐업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와 격려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단순한 축복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가 자영업 성도에게 더 깊은 위로가 됨을 기억하자.